

# 악골골수염환자의 구강위생 및 간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강 화 자

## THE CLINICAL STUDIES OF THE ORAL HYGIEN AND NURSING IN THE PATIENTS WITH JAW BORN OSTEOMYELITIS

Kang Wha Ja, B.S.

*Dept. of Nursing. Infirma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steomyelitis as one of bone diseases is frequently accompanied not only by trismus, halitosis, and lowered resistance, also by wide unfavorable treatment. Such conditions played important roles on the patients mental health and his attitude in the social activity as well.

Therefore, it would seem that emphasis would be placed upon the need of the maticulous nursing care in the respect of such a patients.

The author had made the clinical studies on 60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Dept. of Oral Surgery. Infirmary, School of Dentistry, S.N.U.

It was analysed upon the classification of sex, age, level of knowledge, stand ards of living, oral hygiene status and how to know the physical therapy.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

- 1) On the aging, osteomyelitis was highly revealed in the third decade. Female was higher frequency than male.
- 2) Both the lowered knowledge level and lowered standards of living had high frequency of occurance.
- 3) About 30% of patients were brushing the teeth improperly
- 4) On most of patients dental caries and calculus were observed.
- 5) Most of patients visited pharmacy rather than dental clinic when they suffered from signs of disease.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4 장 고 안
제 2 장 연구재료 및 방법	제 5 장 결 론
제 3 장 연구성적	참고문헌

\* 본 논문은 1975년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임상연구비 에서 충당하였음.

## 제 1 장 서 론

치근단 병소, 치주조직 질환, 외상, 골절후 및 기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양 및 골수염<sup>2)</sup>은 구강외과 영역의 질환중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조직 질환의 일종으로써 극심한 전신적 병발증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항생제의 출현으로 그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진보된 의로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의 의학적 상식 부족이나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포함한 제발치치를 조기에 행하지 못함으로써 치유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관진급, 심한 구취 및 전신쇠약을 포함한 병발증 이외에도 치료후 안모에 광범위한 반흔을 유발케 되고, 환자의 정신건강 및 사회 복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원의 세심한 간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저자는 1975년 1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한 골수염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의사의 처치와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원의 적절한 간호업무 및 계몽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 제 2 장 연구재료 및 방법

### A) 연구의 대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한 골수염 환자중 설문에 응한 60명을 대상으로 했다.

### B) 연구도구로는 설문을 사용했다.

설문지는 저자가 고안한 것이었으며, 이 설문지에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얻어진 자료의 정리는 조사 항목별로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이 수집 이론에 맞게 정밀하게 수집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선정된 집단의 범위에서만 한하며,

셋째,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연구성적

### 1. 환자의 연령, 성별 및 학력

제 1표. 환자의 연령

나이	인수 및 성별		
	남자 인수(%)	여자 인수(%)	계 인수(%)
ㄱ. 10세 이하	3(50)	3(50)	6(10)
ㄴ. 10대	2(66.7)	1(33.3)	3(5)
ㄷ. 20대	12(44.4)	15(55.6)	27(45)
ㄹ. 30대	1(16.7)	5(83.3)	6(10)
ㅁ. 40대	2(33.3)	4(66.7)	6(10)
ㅂ. 50대	2(22.2)	7(77.8)	9(15)
ㅅ. 60대	3(100)	—(0)	3(5)
계	25(41.7)	35(58.3)	60(100)

제 2표. 환자의 학력

교육정도	인수 및 성별		
	남자 인수(%)	여자 인수(%)	계 인수(%)
ㄱ. 국졸 이하	10(41.7)	14(58.3)	24(40)
ㄴ. 중졸	9(42.9)	12(57.1)	21(35)
ㄷ. 고졸	4(44.4)	5(55.6)	9(15)
ㄹ. 대졸	2(33.3)	4(66.7)	6(10)
계	25(41.7)	35(58.3)	60(100)

골수염환자의 연령 성별 및 학력을 보면 제 1표, 제 2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골수염의 다발시기는 20대가 45%나 차지하고 있고 30대에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50대에 증감된다고 본다. 성별에 의한 분류에서 보면 조사인원 총 60명중 35명, 즉, 58.3%가 여자였고 나머지 41.7%는 남자로 나타났다. 학력으로 보아서는 국민학교를 졸업 했거나 무취학이 40%이고 중졸이 35%, 고졸은 15%, 대졸은 10%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높은 군 보다는 학력이 낮은 군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다.

### 2. 환자의 생활정도 상태

제 3표. 생활정도 상태

생활정도	인수 및 성별		
	남자 인수(%)	여자 인수(%)	계 인수(%)
ㄱ. 상	—	—	—
ㄴ. 중	10(40)	17(48.6)	27(45)
ㄷ. 하	15(60)	18(51.4)	33(55)
계	25(41.7)	35(58.3)	60(100)

골수염환자의 생활환경 조사에서 보면 (표 3 참조) 중류층에서는 27명 (45%), 하류층에서는 33명 (55%)으로 나타내어 하류층에서 더욱 호발됨을 관찰할수 있었다.

### 3. 환자의 직업

제 4표. 환자의 직업

직업	인수 및 성별		
	남자 인수(%)	여자 인수(%)	계 인수(%)
가. 상	4(16)	2(5.7)	6(10)
나. 회 사	1(4)	2(5.7)	3(5)
다. 무	12(48)	24(68.6)	36(60)
라. 노	8(32)	7(20)	15(25)
계	25(41.7)	35(58.3)	60(100)

직업별 조사에서 보면(표 4참조) 무직 36명(60%), 노동 15명(25%), 상업 6명(10%), 회사원 3명(5%)의 순위로 나타났다. 노동을 하거나 직업이 없는층에서 88.6%로 많이 나타났다.

### 4. 환자의 치과병원 이용도

제 5표. 환자의 치과병원 이용도

교육 정도	인수 및 이용도	정규적으	치아가아	치아가아	계
		로 간다 인수(%)	프면간다 인수(%)	파도가지 않는다. 인수(%)	
가. 국	졸이 하	—	12(50)	12(50)	24(100)
나. 중	졸	—	18(85.7)	3(14.3)	21(100)
다. 고	졸	—	7(77.8)	2(22.2)	9(100)
라. 대	졸	2(33.3)	4(66.7)	—	6(100)
계		2(3.3)	41(68.4)	17(28.3)	60(100)

평상시 치과병원 이용도를 보면(표 5참조),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치아가 아프면 간다는 사람이 68.4%로 가장 많고, 치아가 아파도 가지 않는다가 28.3%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치과병원 이용도가 약간 높은 경향이였다.

### 5. 환자의 평상시 양치질 횟수

제 6표. 양치질 횟수

교육 정도	인수 및 상태	한	다	않한	가끔한	계
		인수(%)	인수(%)	인수(%)	인수(%)	
가. 국	졸이 하	12(50)	6(25)	6(25)	24(100.0)	
나. 중	졸	15(71.4)	1(4.8)	5(23.8)	21(100.0)	
다. 고	졸	9(100)			9(100.0)	
라. 대	졸	6(100)			6(100.0)	
계		42(70)	7(11.7)	11(18.3)	60(100.0)	

환자에 있어서 양치질 횟수를 보면 제 6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치질 한다가 70%로 가장 높은율을 나타냈고 안한다가 11.7%로 낮은 율을 보였다. 양치질 하는 경

우에 국졸이하인 경우에는 12명중 50%, 중졸인 경우 15명중 71.4%, 고졸인 경우 9명중 100%전원 그리고 대졸인 경우에는 6명중 전원인 100%가 양치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학력이 높을수록 양치질을 잘하는 경향이 있었다.

### 6. 양치질시의 사용 약제

제 7표. 양치질시의 사용 약제

교육 정도	인수 및 재료	치	소	기	타	계
		인수(%)	인수(%)	인수(%)	인수(%)	
국	졸이 하	12(50)	6(25)	6(25)	24(100)	
중	졸	21(100)	—	—	21(100)	
고	졸	9(100)	—	—	9(100)	
대	졸	6(100)	—	—	6(100)	
계		48(80)	6(10)	6(10)	60(100)	

양치질시의 사용약제 조사 결과로는(표 7참조) 치약이 80%로 가장 많은 사용율을 나타냈고, 소금이나 기타(조약, 보래등)가 각각 10%로 나타났다.

### 7. 환자의 치석 상태

제 8표. 치석 상태

교육 정도	인수 및 정도	+	+	+	계
		인수(%)	인수(%)	인수(%)	
국	졸이 하	9(37.5)	11(45.8)	4(16.7)	24(100)
중	졸	5(23.8)	9(42.9)	7(33.3)	21(100)
고	졸	7(77.8)	—	2(22.2)	9(100)
대	졸	3(50.0)	3(50.0)	—	6(100)
계		24(40)	23(38.3)	13(21.7)	60(100)

치석의 유무상태 조사에서는(표 8참조) 약간 치석이 있는 경우 (+)가 40%로서 제일 많았고, 다음은 중등도(+)로서 38.3%이었으며, 제일 치석이 많은(+)에는 21.7%에 불과하였다.

### 8. 환자의 충치 이환상태

제 9표. 충치의 이환상태

교육 정도	인수 및 유무	1	2-3	4개	없	다	계
		인수(%)	인수(%)	인수(%)	인수(%)	인수(%)	
국	졸이 하	—	8(33.3)	4(16.7)	12(50)	24(100)	
중	졸	3(14.3)	7(33.3)	5(23.8)	6(28.6)	21(100)	
고	졸	3(33.3)	6(66.7)	—	—	9(100)	
대	졸	1(16.7)	2(33.3)	—	3(50)	6(100)	
계		7(11.7)	23(38.3)	9(15)	21(35)	60(100)	

총치의 이환유무(9표 참조)를 보면 2~3개 있는 사람이 38.3%, 전혀 없는 사람이 35%, 4개 이상이 15%, 1개 있는 사람이 11.7%의 순위로 나타났다.

9. 필수염 자각증상 출현시 치료장소

제 10표. 자각증상 출현시 치료장소

교육 정도	인수 및 태도	치과병원	약국으로	자가치료	계
		으로간다 인수(%)	간 인수(%)	다한 인수(%)	
국 출 이 하		5(20.8)	13(54.1)	6(25)	24(100)
중 출		6(28.6)	15(71.4)		21(100)
고 출		7(77.8)	2(22.2)		9(100)
대 출		5(83.3)	1(16.7)		6(100)
계		23(38.3)	31(51.7)	6(10)	60(100)

필수염환자들의 자각증상후의 태도조사를 보면(10표 참조) 약국을 찾는율이 51.7%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을 찾는율이 38.3%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었다.

10. 항생제 사용유무

제 11표. 항생제 사용 유무

교육 정도	인수 및 유무	받았다	받 않 았 다	지 기 타	계
		인수(%)	인수(%)	인수(%)	
국 출 이 하		16(66.7)	2(8.3)	6(25)	24(100)
중 출		20(95.2)	1(4.8)	—	21(100)
고 출		6(66.7)	3(33.3)	—	9(100)
대 출		6(100)	—	—	6(100)
계		48(80)	6(10)	6(10)	60(100)

항생제 복용 여부 조사(표 11)에 따르면 조사인원 60명중 48명(80%)이 항생제를 복용했으며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조약(가내처방)을 쓴 사람은 20%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항생제 복용 방법을 보면 짧은 시일 동안에 항생제를 복용한 사람은 89.6%로 높은 율을 보였으며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10.4%로 낮은 율을 보였다.

11. 항생제투여기간중 물리요법 시행유무

제 12표. 항생제 투여시 물리요법 시행유무

교육 정도	인수 및 유무	더운찜질	찬 찜 질	하 얇 았 다	계
		인수(%)	인수(%)	인수(%)	
국 출 이 하		11(68.8)	3(18.7)	2(12.5)	16(100)
중 출		18(90)	1(5.0)	1(5.0)	20(100)
고 출		3(50)	3(50)	—	6(100)
대 출		4(66.7)	1(16.6)	1(16.6)	6(100)
계		36(75)	8(16.6)	4(8.3)	48(100)

항생제 투여시의 점질상태 조사에 따르면 더운찜질이 75%를 차지 했으며 찬찜질을 한 환자는 16.6%, 전혀 하지않은 사람이 8.3%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12표 참조).

12. 발병후 구강세척 횟수

제 13표. 발병후 구강세척 횟수

교육 정도	인수 및 태도	전혀하지 않았다.	가끔했다	자주했다	계
		인수(%)	인수(%)	인수(%)	
국 출 이 하		11(45.8)	10(41.7)	3(12.5)	24(100)
중 출		13(61.9)	6(28.6)	2(9.5)	21(100)
고 출		3(33.3)	1(11.1)	5(55.6)	9(100)
대 출		4(66.7)	1(16.7)	1(16.7)	6(100)
계		31(51.7)	18(30)	11(18.3)	60(100)

발병후 구강청소 상태 조사 결과로는 표 13~14와 같이 전혀 하지 않았거나 가끔 했다는 환자가 81.7%이고 자주했다는 환자는 18.3%에 불과했다.

제 14표. 구강세척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교육 정도	인수	스스로 했	의사 및 간호 원의 지시 를 받 고 했	이 웃 사 람 의 조 언 을 들 어 들	계
		인수(%)	인수(%)	인수(%)	
국 출 이 하		1(7.6)	8(61.5)	4(30.8)	13(100)
중 출		2(25)	5(62.5)	1(12.5)	8(100)
고 출		1(16.7)	5(83.3)	— (0)	6(100)
대 출		— (0)	2(100)	— (0)	2(100)
계		4(13.8)	20(68.9)	5(17.3)	29(100)

구강청소는 누구의 도움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 및 간호원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환자가 68.9%의 높은 율을 보였다.

제 4장 총괄 및 고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의과에 내원한 필수염 환자중 본 설문에 응한 환자는 총 60명이었다.

1. 환자의 배경 : 본 설문에 대한 연구결과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생활수준 정도에 따라 고찰하였는데 Köhler<sup>9)</sup>, 양<sup>11)</sup> 등은 필수염 발생율이 30세 이전에 호발하고 30세 이후에 감소되며 10세 이전에 빈발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보듯이 여성에서 다발하며 20대에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무취학이거나 국출인 경우에서 40% 중출인 경

우 35% 고졸 15% 대졸 10%의 순으로 그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보는 바와같이 노동을 하거나 무직인 저소득층 생활자에게서 골수염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지식층과 생활수준이 높은 층이 저항력 및 저소득층에서 보다 치아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비례적으로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sup>4)5)</sup>.

2) 치아 관리: 평상시 치과 병원을 어느정도 이용했느냐는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정규적으로 간다가 3.3%에 불과하며 치아가 아프면 간다가 68.3% 치아가 아파도 가지 않는다가 28.3%로 나타났다. 이것은 치아가 아파도 생명과는 별관계가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 때문에 곧 병원을 찾지않고 방치해두는 예가 많은 것으로 사려된다. 박<sup>10)</sup>의 보고에 의하면 양치질은 치아우식 활성도를 억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양치질을 하지않는다는 사람이 30%나 나타났다. 생활습관화 되어야 할 양치질을 매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치아건강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 바이다

3) 치아의 건강상태: 김<sup>7)</sup>의 보고에 의하면 치석이나 충치가 치아 주위의 지지조직에 만성적인 이물로써 자극의 원인이 되어 치아건강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치석과 충치 유무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치석이나 충치가 학력이나 생활경도에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치석이나 충치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골수염을 발생시키는 것 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려된다.

4) 발병후의 환자태도: 골수염 환자의 자각증상후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보던 병원을 찾는 경우가 38.3%, 약국으로 간다가 51.7%, 자가 치료가 10%로 나타났다 이것은 골수염에 감염되어 자각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을 찾지않고 약국으로 간다든지 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적인 치료방법에 의존하므로써 조기발견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처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을 찾는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약국을 찾는 경향이 높음을 보였다.

5) 간호 방법: 발병후 항생제의 복용과 함께 물리요법 및 구강청결 상태는 임상증상과 치유기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골수염이 급성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병점질을 해야하며, 만성인 경우 더운점질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구강상태가 청결하게 하므로써 환자의 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리치료 요법에 관한

본 연구에서 발병직후 병점질을 하는 경우 보다는 더운 점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점질 16.6% 더운점질 75%)있었으며 구강세척에 관한 연구에서 통증으로 인해 구강세척은 전혀 하지않은 경우 (51.7%) 뺏가끔하는 경우 (30%)가 연구대상 환자중 약 81.7%로 높은 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물리요법 및 구강세척 문제는 골수염 환자 계몽에 있어서 선결문제이며 간호의 중요성이 입증 된다고 사려된다. 따라서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물리요법 및 구강내 청결에 관한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 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계몽 지도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제 5 장 결 론

저자는 197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의과에서 골수염으로 수술받은 환자중 본 설문에 응한 6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경도와 경제상태, 치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골수염 환자는 20세에서 다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 더 많이 빈발 하였다.
2. 학력이 낮은군 및 저소득층인 노동을 하는 층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3. 골수염 환자중 약 30%가 양치질을 안하고 있었다
4. 골수염 환자에 있어서 충치와 치석이 많이 있었다
5. 대개의 환자가 자각증상을 느낀후에 치과병원 보다는 약국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 설 문

- 1)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 학 별 \_\_\_\_\_ 직업 \_\_\_\_\_
- 2) 생활정도 상 중 하
- 3) 평상시 치과병원에 어느 정도로 다니십니까?  
ㄱ. 1년에 한번 또는 일정기간 정규적으로 간다.  
ㄴ. 치아가 아프면 간다.  
ㄷ. 치아가 아파도 가지 않는다.
- 4) 양치질은 하십니까?  
ㄱ. 한다.      ㄴ. 안한다.      ㄷ. 가끔 한다.
- 5) 양치질을 하실 때 어느 것을 사용 하십니까?  
ㄱ. 치약      ㄴ. 소금      ㄷ. 기타(조약)
- 6) 치석의 유무  
ㄱ. +      ㄴ. ㄱ      ㄷ. ㄷ
- 7) 충치의 유무

- ㄱ. 1개    ㄴ. 2~3개    ㄷ. 4개이상    ㄹ. 없다.
- 8) 아프기 시작했을 때.  
 ㄱ. 제일 먼저 병원으로 간다(치과병원).  
 ㄴ. 제일 먼저 약국으로 간다.  
 ㄷ.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고 조약으로 치료를 할려고 한다.
- 9) 약국이나 치과병원에서 항생제 투여를 받았습니까?  
 ㄱ. 받았다.                    ㄴ. 안받았다.
- 10) 받았다면 몇칠이나 받았습니까?  
 ㄱ. 1일                    ㄴ. 2~3일                    ㄷ. 5일이상
- 11) 항생제 투여시 더운점질 또는 찬점질을 한적이 있습니까?  
 ㄱ. 더운 점질을 했다.  
 ㄴ. 찬 점질을 했다.                    ㄷ. 안했다.
- 12) 발병후 구강 세척은 어느정도 하였습니까?  
 ㄱ. 전혀 하지 않았다.  
 ㄴ. 가끔 했다.  
 ㄷ. 자주 했다.
- 13) 구강 세척은 누구의 지시로 했습니까?  
 ㄱ. 스스로 했다.  
 ㄴ. 의사 및 간호원의 지시를 받고 했다.  
 ㄷ. 이웃의 조언으로 했다.

problems of submassetric abscess, Brit.J. Oral surg. 1:55 July 1963.

2) Thoma, K.H.: Oral Surgry, 4th ed, 2:781 1969.

3) Dalc, C.C.: Prolonged trismus in chronic abscess of the pterygoidmandibular space J.O.S. 28:424-431. 1970.

4) 양동규, 김수남: 치아 발거문제에 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9:7 450 1971.

5) 한정석: 유치관리 상태 및 어머니 교육 정도와의 관계 연구. J.K.D.A., 12: 655 1974.

6) 윤응구: 구강의과 질환의 통계적 관찰. Medical Digest, 4: 10, 101-120, 1962.

7) 김주환: 임상가를 위한 구강 위생학,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 14. 1965.

8) 주관철: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책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 5, 31, 1965.

9) Köhler, J. A.: Klinisch-roentgenologische studie Zur Osteomyelitis des Ramus Mandibulare und seine Fortsätze. Deutsch zahn Mund Kiefer heilk 13:179, 1950.

10) 박광진: 치아우식 활성화에 대한 Tooth Brushing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8: 625 1970.

11) 양동규, 김수남: 치아 발거를 위한 염증성 질환의 통계학적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9: 427 1971.

References

1) Kay, I.W., and Killy H.C.: The surgical



保社部 인정 제49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京福齒科技工所

KYUNG BOK DENTAL LAB.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서울 中區 陽洞 62-23 <조양빌딩 501~3호>

대체제과 서울 525824

TEL (24) 4144 (22) 1393